

중동 소식:

프랭캅 Francop

3,000 대의 로켓과 폭탄을 포함한 500 톤 가량의 무기와 탄약을 싣고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헤즈볼라에 전달할 목적으로 항해하던 화물선 “프랭캅”이 이스라엘의 정예 해군 특공 13 부대에 의해 나포되었습니다. 무기의 원산지는 이란이었고, 일반 상품들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는 외교관들과 아쉬돈 항의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테러리스트들이 이란의 지원과 공급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모두 서방 세계를 기만하고 국제 규정에 맞서고 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의 공사들은 무기 수송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이 모든 사건을 꾸며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이텔 Teitel

마침내 아리엘에 사는 10대 메시아닉 유대인 아미엘 오르티즈 Amiel Ortiz에게 폭탄 공격을 한 유대인 “테러리스트”가 잡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이콥 테이텔 Jacob Teitel 로 미국 출신 이민자이며, 우익 광신도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청년 택시 기사 살해도 자백했으며, 동성애자, 이스라엘 경찰 및 대학 교수에 대한 수차례의 공격에 대해서도 의심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많기 때문에, 아미엘 오르티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소들과 더불어 아미엘이 당한 공격이 올바른 시각에서 조명되게 되었습니다. 아미엘은 무죄하고 이 테러는 극악한 것이었습니다. 한 유력 히브리 신문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를 냈는데, 오르티즈 가정과 살해된 팔레스타인 택시 운전수의 가정의 만남을 다뤘습니다.

농담?

이번 주 이스라엘에서 유행하고 있는 농담이 있습니다.

"너 아흐마디네자드가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 들었어?"

"말도 안 돼."

"그것만이 아니라, 카다피도 유대인이래. "

"어처구니가 없네. 그 다음엔 콜드스톤도 유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말씀:

행 2:17 – 전과 후

행 2:17 은 마지막 때를 다룬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 2:28 의 인용이지요).

행 2:17-21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오순절 아침, 성령이 임하신 직후에 시몬(베드로)은 모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방금 체험한 것이 요엘 예언 성취의 시초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몬이 성령 강림 직후에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 강림 이전에 이 구절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성경을 인용한 것은 일어난 사건을 거슬러 설명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인용하며 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세계 부흥에 대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슈아 초림 직후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에 한 몫을 했듯, 재림 직전의 성령의 부으심을 일으키는 데에 한 몫을 할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부활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셨습니다(행 1:3). 그 때 가르치신 구절들 중에 분명히 율 2:28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샅부울 아침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매일 기도로 연합했습니다(행 1:14, 2:1).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구절들 가운데에는 요엘의 예언이 있습니다.

1 세기에 이 구절의 성취가 있기 전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 구절의 중요성에 대한 계시를 주셨듯, 지금도 성령께서는 21 세기에 이 말씀의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작은 메시아닉 공동체가 자신들의 때에 성경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강하게 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향하는 종말의 예언들을 이루는 데에 자신들이 기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상 우리는 더 큰 일도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재림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일 기회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들보다 커뮤니케이션과 성경 교육의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뤄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행 2:17 은 마지막 때 전세계적 부흥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스스로 성취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예언입니다.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약속입니다. 사 53:5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은 육신의 치유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 2:28 ("내가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은 세계 부흥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언할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저희는 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히브리 선지자인 요엘은 이 부흥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배경 가운데 보았습니다. 요엘서의 전체적 구조는 다음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 죄악으로 인한 땅의 파멸 2) 기도, 금식, 회개 3)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4) 영적 부흥의 예언 5) 여호와의 날의 이름 6) 이스라엘을 치는 열국에 대한 심판 7) 지상 낙원의 회복. 이 예언이 주어졌던 배경은 예언이 성취되는 배경과 동일한 것입니다.]